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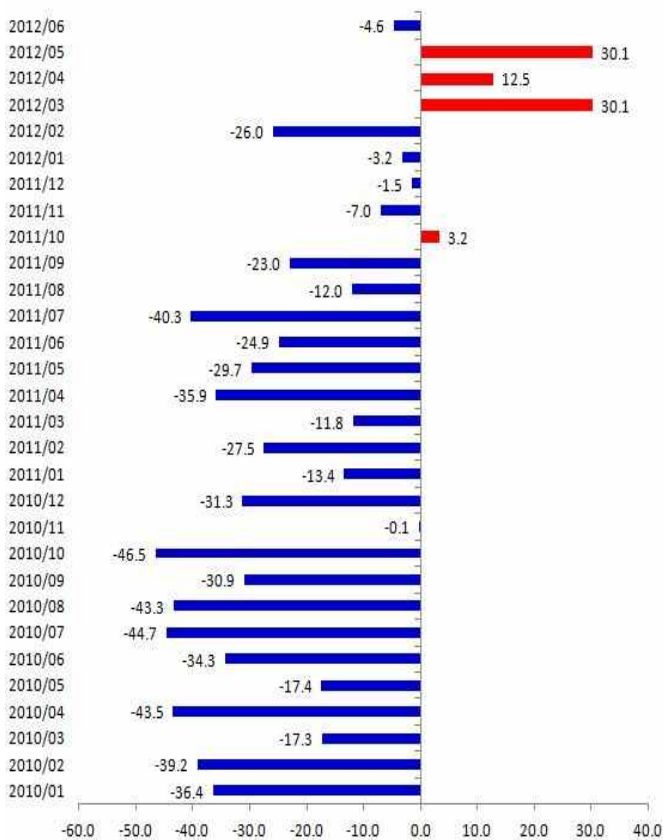
■ 국제수지(음향영상서비스수지)의 현황과 추이분석 ■

김은정(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콘텐츠 관련 수출 통계는 매월 발표되는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가 있으며, 연간 발표되는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수출통계’ 등이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는 외국환 거래를 수집, 집계한 것으로 최근 K-pop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어 그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1998년 100억 달러 전후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사상 최대치의 경상수지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오다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1>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의 국제수지 월별 변화 추이('10년 1월 ~ '12년 6월)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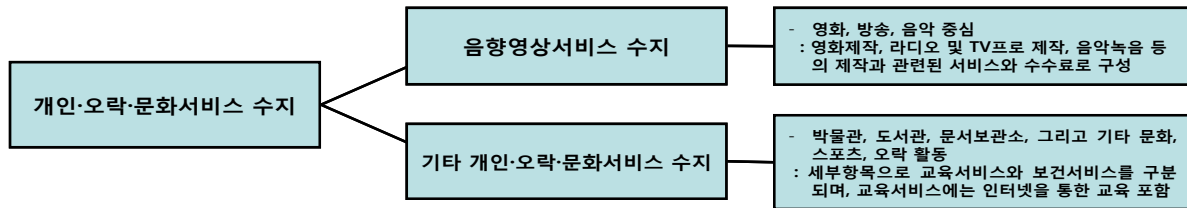


구분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국제수지		
	수입	지급	수지
'12년 06월	90.6	95.2	-4.6
'12년 05월	114.0	83.9	30.1
'12년 04월	103.8	91.3	12.5
'12년 03월	116.0	85.9	30.1
'12년 02월	78.8	104.8	-26.0
'12년 01월	79.5	82.7	-3.2
'11년 12월	107.2	108.7	-1.5
'11년 11월	66.0	73.0	-7.0
'11년 10월	76.5	73.3	3.2
'11년 09월	74.8	97.8	-23.0
'11년 08월	72.1	84.1	-12.0
'11년 07월	60.6	100.9	-40.3
'11년 06월	56.3	81.2	-24.9
'11년 05월	48.3	78.0	-29.7
'11년 04월	60.2	96.1	-35.9
'11년 03월	62.5	74.3	-11.8
'11년 02월	46.7	74.2	-27.5
'11년 01월	62.8	76.2	-13.4
'10년 12월	76.2	107.5	-31.3
'10년 11월	73.2	73.3	-0.1
'10년 10월	40.2	86.7	-46.5
'10년 09월	58.7	89.6	-30.9
'10년 08월	43.5	86.8	-43.3
'10년 07월	58.7	103.4	-44.7
'10년 06월	58.3	92.6	-34.3
'10년 05월	42.3	59.7	-17.4
'10년 04월	39.5	83.0	-43.5
'10년 03월	58.5	75.8	-17.3
'10년 02월	41.1	80.3	-39.2
'10년 01월	46.5	82.9	-36.4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수지」 재구성
 주) 막대그래프는 서비스 수입과 서비스 지급 간의 차액을 나타내며 빨간색 막대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 흑자(서비스 수입 > 서비스 지급)를, 파란색 막대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 적자(서비스 수입 < 서비스 지급)를 나타냄

한국은행의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는 음향영상서비스와 기타 개인·문화·오락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향영상서비스의 하위분류에는 영화제작, 라디오 및 TV프로그램 제작, 음악 녹음 등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와 수수료로 구성되며, 기타 개인·문화·오락서비스의 하위분류에는 박물관, 도서관, 기타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서 세부항목으로는 교육서비스(온라인교육 포함)와 보건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개인·오락·문화서비스 수지의 분류



지난 3년 동안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10년 10월 4,650만 달러의 큰 적자폭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그 폭을 줄여오다가 '11년 10월 처음으로 3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후 '12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이 사상 최대인 3,01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1년 10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분기별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11년 4분기 적자폭이 크게 개선된 이후, '12년 1분기 서비스 수지 90만 달러, '12년 2분기 서비스 수지 3,800만 달러 등 '12년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과 지급(수출과 수입)의 변화 추이를 보면, 수입(수출)은 '10년 상반기 대비 '12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무려 103.6%(286.2백만 달러 → 582.7백만 달러)를 보인 반면, 지급(수입)은 14.7%(474.3백만 달러 → 543.8백만 달러)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의 국제수지 분기별/반기별 변화 추이('10년 ~ '12년)

(단위: 백만달러)

분기	'10년 1분기	'10년 2분기	'10년 3분기	'10년 4분기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2년 1분기	'12년 2분기
서비스 수입	146.1	140.1	160.9	189.6	172.0	164.8	207.5	249.7	274.3	308.4
서비스 지급	239.0	235.3	279.8	267.5	224.7	255.3	282.8	255.0	273.4	270.4
분기별 수지	△92.9	△95.2	△118.9	△77.9	△52.7	△90.5	△75.3	△5.3	0.9	38.0
반기	'10년 상반기		'10년 하반기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서비스 수입	286.2		350.5		336.8		457.2		582.7	
서비스 지급	474.3		547.3		480.0		537.8		543.8	
반기별 수지	△188.1		△196.8		△143.2		△80.6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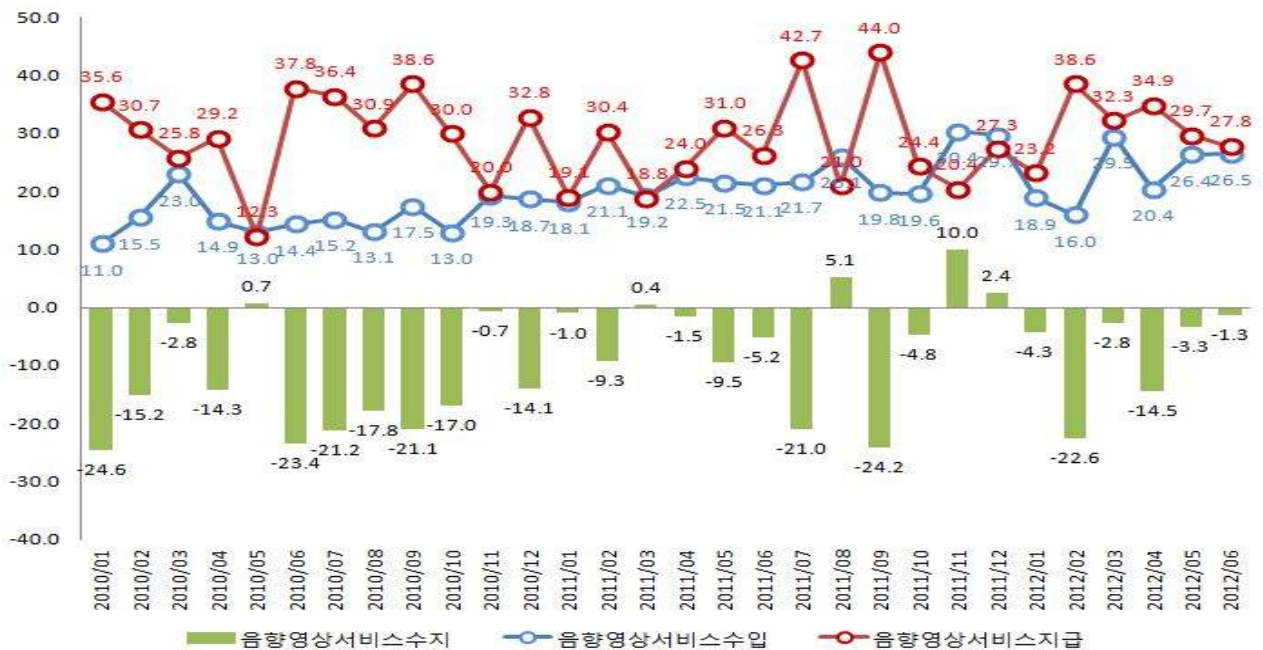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 재구성

특히 K-pop을 포함한 영상 관련 수출입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향영상서비스 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음향영상서비스 수지는 '10년 5월 0.7백만 달러, '11년 3월 0.4백만 달러, '11년 8월 5.1백만 달러, '11년 11월 10.0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분기별 변화 추이에서 '11년 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다음 분기인 '12년 1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분기엔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음향영상서비스 수입(수출)은 '10년 상반기 91.8백만 달러에서 '12년 상반기 137.7백만 달러로 50%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월별 변동폭은 적어 안정적이고 완만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급(수입)은 '10년 상반기 171.4백만 달러에서 '12년 상반기 186.5백만 달러로 8.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수출) 보다 월별 변동폭이 커서 명확한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10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은 음향영상서비스 수입이 50%로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 증가율(103.6%)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으며, '12년 상반기의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 582.7백만 달러 중 음향영상서비스 수입은 137.7백만 달러로 23.6% 비중을 차지하는 등 K-pop 등 한류 효과가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날 뿐 산업 전체적으로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음향영상서비스의 국제수지 월별/분기별/반기별 변화 추이('10년 ~ '12년)

(단위: 백만달러)



분기	'10년 1분기	'10년 2분기	'10년 3분기	'10년 4분기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2년 1분기	'12년 2분기
서비스 수입	49.5	42.3	45.8	51.0	58.4	65.1	67.6	79.7	64.4	73.3
서비스 지급	92.1	79.3	105.9	82.8	68.3	81.3	107.7	72.1	94.1	92.4
분기별 수지	△42.6	△37.0	△60.1	△31.8	△9.9	△16.2	△40.1	7.6	△29.7	△19.1
반기	'10년 상반기		'10년 하반기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서비스 수입	91.8		96.8		123.5		147.3		137.7	
서비스 지급	171.4		188.7		149.6		179.8		186.5	
반기별 수지	△79.6		△91.9		△26.1		△32.5		△48.8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 「음향영상서비스수입 및 지급」 재구성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0년 8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성비를 보면 운송분야가 46.6%로 비중이 가장 크고, 개인·문화·오락서비스분야가 0.8%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1%로 상품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3.0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분야의 대외경쟁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00~'10년) 서비스 수출의 GDP 대비 비율은 '00년 5.8%에서 '10년 8.0%로 활발한 대외진출로 인해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상품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만성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아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한류의 확산에 따라 문화수출국으로 급부상 중인 우리나라는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음향영상 서비스 수지의 안정적 흑자 전환 전망과 더불어 이중 상품군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우리나라 서비스 국제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산업별로 업종과 품목(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의 현황과 유망진출 지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콘텐츠 관련 수출 통계는 각각의 정의와 집계방식이 다르므로 인해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다.

예컨대,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수출통계**는 기업체 수출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응답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모든 수출업체를 포괄하기 어려워 과소 집계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에서 콘텐츠 관련 수출은 출판, 음악(디스크/레코드판/테이프), 영화(영화용 필름), 게임(아케이드게임) 등 상품·재화(goods)를 중심으로 일부만 파악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분야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에서 콘텐츠 관련 분류도 개인·문화·오락서비스 하위에 음향영상서비스로 한정되며 방송, 영화, 음악 분야만이 파악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두 수출 통계 모두 현재 콘텐츠 수출의 절반(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배제되어 있다.

최근에 한국수출입은행(2012)의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도 관세청의 4개 산업(방송/영화/음악/출판) 수출액만을 통해 최종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콘텐츠 상품 100달러 수출이 소비재 수출 412달러를 견인한다는 결과는 4개 분야지만 한류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통계는 매월 집계, 발표되어 주요 콘텐츠 수출입 동향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현재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국생산물분류(KCPC)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각 통계의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서로 연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류 개정과 집계가 이루어진다면 활용성과 정확성은 통계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 참고문헌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2. 7
- 국제수지(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 한국은행, 2010.1~2012.6